

여성 성장 소설의 병리학적 상상력

- 오정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

문 재 원*

차 례

- | | |
|------------------------|------------------------|
| I. 들어가기 | IV. 병리적 성장의 은유 |
| II. 아버지 세계의 폭력성과 불모성 | V. 반기억의 서사- 전체화에 대한 거부 |
| III. 타자화된 공간과 우울증적 동일시 | VI. 나가기 |

I. 들어가기

성장소설은 미성년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세계의 주체로서 정립되는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다. 성장을 열망하는 주인공들은 시련과 분리의 고통을 체험하고 스스로의 미숙이나 부족함을 극복하고 성인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인식적 능력 혹은 실천적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결핍과 충족, 출발과 귀환, 분리와 결합의 형식¹⁾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성장 소설 형식에서는 미숙한 존재가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통과제의의 양상을 보

* 부산대학교 강사

1)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47쪽.

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독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때 충족, 귀환, 결합의 궁극점에 도달하는 기저에는 당대 사회의 이념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내면화 내지는 용인시키는 상징권력²⁾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성장소설에서 성장주체들의 행위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상징권력의 담론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성장소설은 자아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양면성을 갖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성장소설과 다르다. 여성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은 삶의 본질과 철학을 배움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성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여성의 성장은 나선 모양의 운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여성의 나선적 성장 모습은 직선적 움직임을 통해 다른 관점에 이르게 되는 발전의 모습과 순환적인 반복성을 통해 변화 없이 정지된 위치에 있게 되는 패배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중성을 갖게 된다.³⁾

2) 부르디외의 상징권력이란 개념은 특정 발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그 나름의 스타일과 레토릭,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발화할 때, 특정한 맥락과 관련된 합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담론에 수행성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그 개념은 노골적인 폭력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구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합의와 그 합의가 생산해 낸 구조화된 여러 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상징권력은 담론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담론에 의해 형성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담론이 일종의 자기검열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담론은 그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133쪽, 190쪽.

3) 남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의 성장이 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 면이 강한데 비해, 여성 주인공의 성장은 순간적이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강하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결국 남성 성장 소설의 주인공들이 조화나 이성, 전체성의 국면을 획득해 가는 발전의 서사를 경험한다면,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은 내면 심리로 복귀나 혼동, 반항에 만족해야 하는 생존의 서사를 경험한다.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78-390 참조.

본고는 오정희의 『완구점 여인』,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새』⁴⁾에 나타난 주체의 성장 형식과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이 소설 작품에서는 유년기의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삼고, 여아들의 성장형식을 구조화하고 있다. 어린 아이를 초점화하여 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어떻게 내면화하는가의 문제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성장소설의 형식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한결같이 공허감, 일탈욕구, 막연한 공포, 환멸, 슬픔, 위반의 경험적 인식이 동반된다. 물론 이러한 요소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험적 인식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성장주체가 경험하는 현실이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된 고통 즉, 제의적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장 소설 형식과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작품들에서는 성장의 주체를 내세우되, 결핍과 충족, 출발과 귀환, 분리와 결합의 과정에서 후자의 공간으로 안착되는 결말의 플롯이 모호하게 드러나거나, 아예 거부된다. 이러한 플롯의 전개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성장주체들이 배치되어 있는 ‘병리적 공간’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정희의 성장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주체들의 병리적 현상이다. 작품 속에서 여아들의 병리적 징후들은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성장을 거부하는 플롯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병리적 징후들을 통해 상징권력의 내면화 방식을 드러내는 오정희의 성장 소설들은 직선적이고 계몽적인 목적의 서사에서 벗어나 있다. 즉, 직선적인 계몽의 구조에서 일탈되어, 오히려 反성장의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완구점 여인』,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새』

4)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완구점 여인』(『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77),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새』, 문학과지성사, 1996

에서 여아들이 통과해야 하는 세계의 병리적 징후들을 포착하면서, 이것들이 이들의 성장의 내면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II. 아버지 세계의 폭력성과 불모성

아버지의 세계⁵⁾는 유년기의 아동이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규범과 제도를 상징한다. 성장을 내적 형식으로 하는 소설형식이라면 이러한 당위적 공간의 설정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오정희의 소설 『완구점 여인』, 『유년의 뜰』, 『새』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공통점은 합리적인 세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폭군이거나(『유년의 뜰』, 『새』) 외도를 하거나(『완구점 여인』), 아이들을 방기하는 아버지(『새』)들이다.⁶⁾

1) 오빠의 매질은 무서웠다. 오빠는 작은 폭군이였다. 아버지가 떠난 이래 부쩍부쩍 자라는 오빠의 몸이 어느 결엔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다. 어머니가 읍내 밥집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수상쩍은 외박이 잦아지자 오빠는 암암리에 아버지의 위치를 수락하였음을, 공공연히 자행되는 매질로 나타냈다. (『유년의 뜰』, 27-28쪽)

2) 사람들은 그녀, 부네의 아버, 그 늙고 말없는 외눈박이 목수가 어

5) 여기서 아버지는 상징적 세계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전통을 상징하거나, 도덕적인 계율, 금지와 제재의 권위를 상징하며, 또 붕괴의 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가치와 이미지는 흔히 양면성을 지니고 나타난다. 뿌리를 찾거나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 곧 아버 찾기이며, 新舊의 세대적 갈등, 일체의 거부와 기존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곧 아버 죽이기이다. 이때 죽이기란 제거, 거부, 극복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다.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430-431쪽 참조

6) 『중국인 거리』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 이사를 하기로 한 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아버지 탓이다. 아버지는 그 뒤로 작품 안에서 어떤 기능도 하지 않는다. 가족의 생계와 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할머니와 어머니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땡게 그의 바람난 딸을 벌건 대낮에 읍내 차부에서부터 끌고 와 어떻게 단숨에 머리칼을 불밤송이처럼 잘라 땃바람에 골방에 쳐 넣고, 마치 그럴 때를 준비해 온 듯 쇠불알통 같은 자물쇠를 철커덕 물렸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유년의 뜰』, 20쪽)

3) 띄약벌 아래 맥고모자를 쭈그러뜨려 쓴 남자가 거렁뱅이처럼 다리를 끌며 지나갔다. 더위 때문인가, 아니면 낫술에 취해 있는 걸까, 벌건 얼굴에 키가 훌쩍 큰 남자였다. (『유년의 뜰』, 63쪽)

『유년의 뜰』에는 세 부류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1)은 부재중인 아버지를 대행하고 있는 오빠, 2)는 이웃집 아버지, 3)은 돌아온 아버지이다. 이들은 성장주체인 ‘노랑눈이’가 만나는 아버지들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은 폭군이거나, 비루한 행색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부재⁷⁾ 집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열여섯 난 오빠다. 아버지 대행인 오빠는 늘 언니에게 매질을 일삼는 폭군이다. 그래서 오빠는 언니나 나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한편 주인집 ‘부네’의 아버지 ‘외눈박이’ 목수는 부네를 폭행하며, 방 안에 유폐시킨다. 그러므로 오빠, 외눈박이는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한편 ‘거렁뱅이’ 행색으로 ‘다리를 끌며’ 돌아온 아버지는 나에게 기억 속의 아버지와 현실의 아버지 사이에서 혼란과 충격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아버지와 맞닥뜨린 내가 보여주는 태도가 ‘구토’와 ‘까닭모를 눈물’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아버지에 대한 노랑눈이의 태도는 복잡적이다. ‘나를 무등 태워 밖으로 나갔’던 ‘정다운’ 아버지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허리’의 기억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오

7) 6.25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성장소설에서 아버지 부재는 여성성과 사회적 자아의 정립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김경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성역할을 교육시키고 사회화시켜야 할 남성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정신적 성숙의 방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경수, 『여성 성장소설의 제의적 국면』,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233쪽.

늘 노랑눈이가 맞닥뜨린 아버지는 ‘거렁뱅이’에 다리를 절고 있는 불구의 남자이다. 상상의 아버지와 현실의 아버지가 충돌하며, 비천한 현실의 아버지 앞에서 노랑눈이는 ‘구토’라는 육체적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구토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다.⁸⁾ 딸의 性的 욕망을 억압하며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든지, 딸(누나)에게 매질을 일삼는 아버지(오빠)든지,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온 아버지이든지 이들은 한결 같이 노랑눈이에게 공포와 충격으로 다가오는 아버지들이다.

한편, 『새』의 아버지는 열두 살인 ‘나(우미)’와 열 살인 동생, 우일이를 방기한 채 소식이 없다. 몇 달째 소식이 없는 아버지를 나는 꿈속에서 만난다. 현실에 대한 억압기제로 꿈을 읽어낼 때, 우미의 꿈은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폭력성에 대한 무의식적 기제로 읽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이 내 티셔츠를 가슴팍까지 걷어 올렸다. 슬냄새가 몹시 났다. 뜨거운 손이 가슴을 더듬었다. 이제 처녀가 다 되었구나. 만지작거리는 손길에, 젓몽우리가 도록이 솟기 시작하는 가슴이 아얏 소리를 지르게 아팠지만 나는 비명을 참으며 눈을 꼭 감은 채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손을 거두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들도 불쌍하지만 나도 어지간히 불행하고 외롭고 기박한 인간이다. 잠시 후에 손이 또 건네 왔다. 뜨겁고 조바심치는 손길이 또 다시 젓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새』, 117쪽)

8) 여기서 수용거부의 대상은 명료하지 않다. 이정희는 오빠를 대신한 아버지에 대한 거부, 즉 ‘유교적 가부장제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시하나, (이정희, 「오정희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Gender)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1, 38쪽) 여기서 돌아온 아버지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사를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과거 단편적인 기억 속의 힘 있는 아버지와 현실의 거렁뱅이 아버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적 체험에서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는 혼란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태도로서 구토와 눈물을 읽어야 한다. 현재 노랑눈이 앞에 나타난 비루한 아버지 역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계기체가 되지 못하고 단절시켜 버림으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삭지 않는 피멍으로 언제나 꽃이 핀 듯 울긋불긋’한 얼굴을 갖게 되었고, 동생인 우일이는 아버지에 의해 3층에서 내던져진 뒤 성장지체아가 되었고, 나(우미) 역시 무의식의 공간에서 만나는 아버지에게 성폭행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우미 가족에게 경험적 아버지는 곧 폭력 그 자체이다.

폭군인 오빠, 딸을 감금한 부네의 아버지, 가정부와 바람난 아버지, 자식을 방기한 아버지. 이들은 성장 주체들인 여아들이 내면적 질서로 수용해야 하는 경험적 세계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세계로 진입하며, 그 규범과 의식을 내면화하며 성장의 궤도를 밟아야하는 성장 주체들에게 이들 아버지가 보여주는 세계는 폭력 그 자체이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아버지의 세계가 폭력적이고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은, 여아들이 경험해야하는 현실의 풍경이 그토록 폭력과 부정의 질곡 위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 오정희의 전략이다. 나아가 이러한 현실 질서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공포, 환멸, 슬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폭군의 아버지들이 女兒들에게 동화나 수용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공포와 거부 공간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작가 오정희의 젠더 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⁹⁾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¹⁰⁾ 특히 김영애는 아버지 세계에 대한 공포와 어머니에 대한 환멸적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여아들에게 주목하고 反아버지, 反어머니에 대

9) 김영애는 오정희의 소설에서 성장주체들의 ‘지연된’ 성장을 지적하면서 이는 여성이라는 성적 특수성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성장주체인 여자아이들을 지연된 성장으로 유도하는 계기들은 여아들의 독특한 체험과 그 체험이 파생해낸 모성에 대한 환멸과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거부로 읽어낸다. 김영애, 『오정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학연구』, 20,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4, 378쪽.

10) 김복순, 『여성광기의 귀결, 모성 혐오증』,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국문학연구회, 한길사, 2000, 37-71쪽.

김효신, 『오정희의 성장소설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1, 19-46쪽.

김예니, 『여성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 양상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4, 54-83쪽.

한 인식적 체험이 여아들의 성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음을 밝혀낸다.¹¹⁾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反**아버지 인식을 넘어 아버지 세계에서 또 다른 공포를 환기하는 타자들의 공간이다. 즉 아버지의 공포에서 출발하되, 이들이 도달하는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추방당한 타자들의 우울의 공간이며, 이를 내면화하면서 성장의 독특한 형식을 구성해 내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Ⅲ. 타자화된 공간과 우울증적 동일시

억압적이고 비합리적인 아버지의 세계에서 성장하는 여자 아이들이 다가가는 바깥 세계는 남다르다. 『완구점 여인』의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완구점 여인에게, 『유년의 뜰』에서 노랑눈이는 감금된 부네에게, 『중국인 거리』에서 시골에서 낯선 도시로 입성한 나는 낯선 ‘중국인 남자’나 창녀인 ‘매기언니’와 그의 딸 ‘제니’에게, 『새』의 우미는 지붕에서 추락하여 누워만 지내는 ‘연숙이 아줌마’에게 친근감을 보인다. 이들이 친근감을 보이는 대상들은 한결같이 밖으로 추방당한 자들이다. 중국인 남자는 경계와 차별의 시선을 받는 이국민이고, 매기 언니는 ‘상종 못할’ 창녀이며, 완구점 여인은 걷지 못하고, 부네는 방에 유폐된 병어리 여인이며, 제니는 다섯 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웃은 물론 손가락질도 하지 못한다. 연숙이 아줌마는 지붕에서 추락한 이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는 사랑하는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처럼 한결같이 결핍, 비정상의 공간에 놓여있는 이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배제와 망각의 대상이 될 뿐이다.

『완구점 여인』의 ‘나’에게 가장 친밀한 공간에 놓여 있었던 인물은 휠체어에 앉아 지냈던 죽은 남동생이다. 나와 하룻밤을 보냈던 완구점 여

11) 김영애, 위의 논문, 367-383쪽 참조

인 역시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여인이다. 완구점 여인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그 여인에게서 죽은 동생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생은 과거, 죽음, 질병의 코드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동생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 걷지 못하는 동생과 완구점 여인은 비정상의 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완구점 여인의 불구성이 나에게서는 오히려 배려와 포괄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유년의 뜰』에서 주인공 ‘노랑눈이’의 시선을 잡는 것은 주인집 뒷방에 ‘유펜’되어 있는 ‘부네’이다. 부네는 그녀의 아버지 몰래 사랑하는 남자와 도망쳤다가¹²⁾ 그녀 아버지 손에 이끌려 ‘죽지 않을 만큼’ 맞은 이후 골방에 유펜되었다. 부네 아버지는 그녀의 방문에 대못을 박았고, 이후 사람들은 부네를 잊었다. 유독 노랑눈이는 타자화된 부네의 공간을 포용한다. 골방 속에서 새어 나오는 부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그 소리가 유일하게 일곱 살 노랑눈이 귀에는 들리는 것이다.

불현듯 닫힌 방문의 안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쩌면 약한 탄식 같기도, 소리 죽인 신음 같기도 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어느 순간 방문의 누렇게 찌든 창호지가 부풀어 오르고 그 안쪽에서 어른대는 그림자를 얼핏 본 것도 같았다.

아아아아아아

12) 푸코에 의하면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세 가지 배제의 과정인데 대상에 있어서의 금기, 상황에 있어서의 관례, 그리고 말하는 주체에서의 특권이거나 배타적 권리라는 금지의 놀이다. 이 금지의 대표적 영역으로 성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존재한다. M. Foucault, 이정우,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15-23쪽 참조. 이런 점에서 부네는 성적 금지로부터의 일탈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노랑눈이가 부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가부장제 안에서 성적 욕망의 금지다. 그래서 골방에 유펜되어 죽어 나가는 부네의 슬픔이 노랑눈이에게 전이된다. 부네는 곧 성인이 된 ‘노랑눈이’의 미래의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분가루처럼 얇게 떨어져내리는 햇빛 뿐이었다. 내가 들은 것은 환청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입 안쪽의 살처럼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음을. 내 몸 가득 따뜻한 서러움이 차올라 해면처럼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유년의 뜰』, 49-50쪽)

부네의 신음소리가 ‘따뜻한 서러움’이라는 노랑눈이의 감정으로 전이 되어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부네의 소리는 이미 노랑눈이의 몸속으로 들어와 있다.¹³⁾ 이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상호 교섭될 수 있는 공통된 자질을 갖고 있다. 부네는 아버지를 위시하여 가족들에게 철저히 위반과 배제의 공간에 유폐되어 있는 인물이며, 밖의 사람들에게도 늘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인물이다. 노랑눈이 역시 ‘어쩐지 내가 낳은 애 같지 않다’는 엄마의 꾸밈에 있는 아이이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포용되지 못하고 이질감의 대상이 된다는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둘은 타자화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네의 목소리를 노랑눈이만 들을 수 있었던¹⁴⁾ 것은 이러한 공통적 자질에서

13) 오정희 소설에서 성장주체인 여자아이들이 타자를 발견하는 방법적 틀은 후각, 청각 등의 감각적 원리를 활용한다. 예를 들면 『유년의 뜰』에서 부네를 먼저 발견했을 때도 소리에 의해서이다. ‘노랑눈이’는 ‘우물 깊은 곳에서 듣게 되는 한 숨소리’로 부네를 인지한다. 『중국인 거리』에서 ‘나’는 중국인 남자에게 나는 ‘낮익은 냄새’를 통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 『새』의 우미를 낚선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는 매체 역시 청각적 감각이 동원된다. 이러한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의 감각으로 타인과 교섭하게 하는 방법적 원리는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분리와 구별짓기와는 다른 포괄과 통합의 원리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 속에서 여자 아이들이 타자들과 만나는 방법적 형상원리는 타자에 대한 포괄적 태도를 드러내는 전략인 셈이다.

14) 김경수는 『유년의 뜰』 전체를 통해서 주인공 노랑눈이의 명확한 감정적 태도가 드러난 경우는 바로 부네에 대해 상념할 때뿐이라고 지적한다. 김경수,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 오정희 초기소설의 재해석』, 102-102쪽. 이는 서술의 문체와도 연결된다. 『유년의 뜰』은 ‘노랑눈이’를 화자로 하여 1인칭 외적 초점화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부네에 대해서는 내적 초점화의 시점을 선택하고 있다. 부네의 감정이 나에게 이입되면서 두 사람은 동일화를 체험한다.

연유한다. 부네를 향한 노랑눈이의 감정은 언제나 ‘두려움과 가슴 한 귀 통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으로 곧, 공포와 연민의 감정이 동시에 작용한다. 타인에 대한 감정과 나에 대한 감정이 뒤섞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네를 통해 투사되는 아버지의 폭력과 딸의 고난이 부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어렵듯이 깨닫게 되는 데서 일어나는 복합적 감정의 형태라 볼 수 있다.¹⁵⁾

『중국인 거리』에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양공주 매기언니와 중국인 사내다. ‘천하의 망중’이라는 할머니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 치옥이네에 세 들어 사는 흑인병사와 동거중인 양공주 매기언니 집에 자주 놀러 간다. 그 곳에서는 매기언니와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백인 혼혈아 제니가 있다. 제니는 ‘다섯 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옷은 물론 손가락질도 하지 못해 밥을 떠 넣어주면 입 한 귀로 주르르 흘렸다. 매기 언니의 방에 ‘검둥이(흑인 병사)’가 올 때면 제니는 늘 치옥이의 방에 있어야만 한다. 할머니는 ‘짐승의 새끼’라며 제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장애아 제니나, 검둥이에게 죽임을 당한 매기언니는 결국 같은 인물이다. 이들의 구역은 금기일탈의 구역으로 금기의 세계에 있는 할머니¹⁶⁾나 동네 사람들에게 언제나 배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와 나의 친구 치옥에게만은 예외적이다. 치옥은 나아가 ‘양공주가 될’ 거라며 당당히 말하면서 제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인다. 나는 그런 치옥을 한없이 부러운 시선

15) 여기서 노랑눈이는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한다. 이미 일곱 살의 아이라는 설정도 그러하거나, ‘까닭모를’ 눈물, 슬픔으로 그녀의 감정들이 제시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16) 새끼를 낳은 고양이에게 할머니는 ‘고양이가 쥐새끼를 낳았다’고 고양이에게 반복적으로 말함으로 결국 고양이가 새끼들을 모조리 죽이게 만든다는 이 이야기는 제니를 바라보며 ‘짐승의 새끼’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현재 와 겹쳐진다. 고양이에게 대한 주술적인 삽화를 끼워 넣은 것은 할머니의 세계를 더욱 분명한 금기의 세계로 형상화해 준다. 주술의 공간은 신성한 금기체계가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 된다.

으로 바라본다. 이렇듯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체계와는 달리 나와 치옥은 양공주 매기언니의 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매기언니와 제니를 수용한다. 그러나 매기언니의 죽음과 제니의 떠남으로 나와 치옥이의 수용적 태도가 또다시 좌절을 경험한다.

한편, 나와 가족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터를 잡은 곳은 통칭 ‘중국인 거리’라 불리는 곳이다. 중국인들과 인접해 살고 있으면서도 ‘어른들은 무관심하게 혹은 경멸하는 어조로 띄놈들’ 이라고 말한다. 낯선 이 곳에서, 나는 ‘띄놈들’ 중 한 남자의 시선이 나의 감정으로 전이되는 경험을 한다. ‘고양이를 죽여 바다가에 던지는’ 놀이에 동참한 나의 등 뒤나, 머리를 깎으며 ‘이발소 아저씨에게 달려들’ 때나 매기언니 방에 갔을 때나 어디서나 나를 주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끼는데 그것은 ‘알지 못할’, ‘사라지지 않는’ 슬픔으로 전이된다.

중국인 거리의 이층집 열린 덧문과 이 권을 보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자 알지 못할 슬픔이 가슴에서부터 파상(波狀)을 이루며 전신으로 퍼져 나갔다. (『중국인 거리』, 82-83쪽)

이는 『유년의 뜰』에서 부네와 동질감을 형성하던 ‘노랑눈이’의 그것과 흡사하다. 市의 정상에서 바라볼 때 ‘중국인 거리’는 이미 물에 잠긴 고물(船尾)이었고, 중국인은 경멸의 대상인 ‘띄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나에게 이들은 더 이상 추방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들에게서 오히려 ‘낯익은 냄새’를 발견하며, 몸으로 그 남자의 우울을 읽어낸다.

『새』의 우미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사 온 낯선 집에서 ‘연숙이 아줌마’는 우미에게 아버지나 새엄마 보다 친근감을 전해준 인물이다. 우미는 ‘심심하면 주인집의 연숙이 아줌마’에게 놀러간다. 우미가 지은 아줌마의 별명은 ‘구름박사’이며, ‘마법에 걸린 공주’이다. 이러한 호칭에는 연숙 아줌마를 보는 우미의 태도가 드러난다. 정작

연속아줌마의 어머니 ‘안집 할머니’는 ‘전생의 죄가 많아서’ 라는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우미는 동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우미에게 연속 아줌마는 낯설지도, 무섭지도, 절망적이지도 않다. 정상/비정상, 남성/여성, 생/사로 이분화된 영역에서 우미는 연속 아줌마를 선택함으로 비정상, 여성, 죽음이라는 공간과 친연성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은 일반적으로 낙관적 미래가 기투(既投)되어 있는 성장소설의 시·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완구점 여인』,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새』에서 여자 아이들이 친연성을 보이는 공간은 아버지의 공간 질서가 아니라 앞에서 밝혔듯이 타자화된, 거부된 공간이다. 이 거부의 공간에서 오히려 친연성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병리적인 징후들을 경험한다. 버틀러는 이처럼 거부된 대상과의 합체로 일어나는 슬픔을 우울증적 동일시로 설명한다. 우울증적 동일시는 그것이 상실한 대상을 자아의 일부로서 보존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에 외부적 대상 상실을 허용한다. 따라서 대상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대상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상태를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우울증에서 상실이 거부되는 것은 상실된 대상이 추방되어서가 아니라 내면화의 방식으로 심리 속에 보유되기 때문이다. 우울증에서 완전한 대상의 애도가 불가능한 것은 상실한 대상을 떠나보내기보다는 그 대상을 자기 안에 보존하는 동일시로서의 애착 합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¹⁷⁾

‘얇은뺨이 완구점 여인’, ‘병어리 부네’, ‘양갈보 매기언니’, ‘이민족 중국인’, ‘지체장애인 연속 아줌마’는 사회적으로 거부의 대상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여자아이들의 시선은 거부의 대상으로 종결짓지 못한다. 이 거부의 대상들은 어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화나 합체의 형식으로 여자들의 심리 안에 보유된다.

17)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 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65쪽.

IV. 병리적 성장의 은유

아버지 사회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병리적 징후를 보인다. 여아들의 이러한 병리적 징후들은 곧 여아들이 경험한(인식한) 현실 세계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 곧 어린 아이가 진입해야 할 현실의 세계에 대해 병리적 징후들을 나타내 보임으로 현실이 내포한 위선과 불합리의 질서를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정확하게 열려진 두 개씩의 서랍들은 시커멓게 입을 벌려 어둠을 빨아들이고 있다. 나는 그것들을 노려보면서 언제나처럼 진기한 보물이 가득 들어찬 동굴 속을 보는 듯한 기대와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이곳 교실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예순넷의 책상들이 모두 나의 차지라는 사실이 가슴을 떨리게 한다. 이제 시작할까. 나는 소리를 내서 말해 본다. ... (중략)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버린 교실에서 눈뜨는 나의 세계와 저녁마다의 이러한 작업으로 나는 오뚜기를 사 모은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장난감 가게의 두 다리를 못쓰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완구점 여인』, 231-232쪽)

『완구점 여인』의 주인공은 학생들이 없는 교실을 뒤져서 그 흠친 돈으로 오뚜기를 사 모은다. 동생의 죽음과 아버지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나에게 ‘도벽’이 생기기 시작한다. 즉 동생과 아버지는 죽음이라는 결핍의 공간을 제공한다.(아버지의 외도 역시 스스로 제도의 사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죽음으로 볼 수 있다) 결핍의 공간에서 오뚜기를 사 모은다든지, 완구점 여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 충족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데 충족의 공간이 형성되는 지점은 일탈을 통해 채워진다. ‘도둑질’을 해서 오뚜기를 산다든지, 완구점 여인과의 하룻밤 정사(情事)를 벌인다. ‘완구점 여인에 대한 나의 동성애적 감정은 그것이 생산적 결실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나’의 불모성을 상징하며, 이는 그녀의 신체적 불구성과도 연결된다. ‘도벽’과 ‘동성애’¹⁸⁾ 코드는 일

탈과 위반의 공간에서 함께 만난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일탈적 행위와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동시에 맞닥뜨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은 항상 위반의 표지들과 함께 라야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후 오정희 소설문학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역설적인 여성의 욕망의 형상화에도 관련을 지닌다¹⁹⁾

『유년의 뜰』에서 ‘노랑눈이’는 ‘병적으로 똥보’인데다가 ‘병적으로 먹을 것을 탐’하고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멍청하고, 일곱 살이 되도록 오줌을 쏘’다. 동생의 간식까지 도둑질 하고 밤마다 엄마의 돈을 훔쳐 사탕을 사고, 때로는 사탕도 몰래 빼내기도 한다. 이러한 나의 기형적인 탐닉 역

18) 남성 성장치와 욕망은 남근의 형식을 통해 상징질서의 조직 원리를 이루고 합리적 언어 유형의 근원을 이루면서 사회 권력이 실행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상징질서의 개념을 사용해서는 저항의 공간을 만들 수 없다. 크리스 위던, 조주현 역,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이화여대 출판부, 1993, 80쪽. 이러한 의미에서 나와 완구점 여인의 동성애가 의미하는 바를 읽어 낼 수도 있다.

19) 동생의 죽음과 부권의 상실은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이어진다. (“나는 자꾸 딱딱한 껍질 속으로 위축되어갔고, 그럴수록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맹렬히 커져갔다. (중략) 어머니와 나는 무섭게 냉담해져갔다. 그러나 내 속에 자리 잡은 끈질긴 증오와 대결 의식과 피해 의식은 온 신경을 팽팽히 긴장시키고 그녀에게 향하는 증오는 생활의 유일한 원동력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완구점 여인』, 244쪽) 여기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대는’ 사람이다. 多産의 어머니에 대한 ‘맹렬한’ 증오와 대결의식은 곧 모성에 대한 혐오와 환멸로 이어지게 한다. 모성의 거부와 환멸은 여아가 지닌 내적 성장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에 등장하는 다산의 어머니에 대한 여아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만들어 내는 다산의 공간을 흔쾌히 수락하지 않는다. 이는 어머니의 생산성이 곧 아버지의 법과 질서를 수락하는 데서 가능해지는 데서 연유한다. 여아들이 경험한 아버지 세계는 폭력적이고 불구적인데, 이러한 세계의 질서를 수락하는 것은 결국 타자화된 여성을 수락하는 태도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모성에 대한 거부와 환멸이 복합적인 감정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 세계에 대한 공포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탈적 행위와 소통의 역설에 관해서는 줄고, 『오정희 소통의 부재와 일탈적 욕망의 세계』, 『몸의 역사와 문학』, 태학사, 2002, 151-170쪽 참조.

시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형적 형태를 발동시킨 요인을 살펴보자면, 일차적으로 전쟁이라는 폭력적 현실을 만난다. 큰 아버지(국가)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징집되었고, 아직 학생인 오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족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생계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집 밖으로 나갔다. 전쟁은 이처럼 노랑눈이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녀의 곁에서 빼앗아 간다. 합리적인 세계의 명분은 노랑눈이에게는 결핍과 부재만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처럼 아버지 부재가 가져다 준 파행적 가족 구조- '양갈보'인 엄마, 폭행을 일삼는 오빠(아버지), 훔친 닭으로 식구들을 먹이는 할머니-속에서 빼앗긴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노랑눈이는 결사적으로 '탐(貪)'한다. 이 과정에서 노랑눈이의 도둑질, 거짓말, 식탐, 비만 등 정신적·육체적 인 병리적 징후들은 지속된다.

『새』에서는 우일이, 우미가 성장주체가 된다. 우미의 엄마는 아버지의 호된 매질과 가난으로 집을 나가고 없고, 아버지는 공사장을 전전하느라 아이들은 외가로, 외삼촌의 집으로, 큰아버지 집으로 떠돌이처럼 맡겨진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세상에 혼자 남은 아이들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내면화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사람들의 오래된 규율과 질서, 우리가 스며들 수 없는, 우리를 거부하는 낯선 삶이 느껴졌다. (『새』, 27쪽)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리내지 않기, 소리내지 않고 웃기, 소리내지 않고 울기. 소리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 56쪽)

소리는 타인과 교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이고 원초적인 매체다. 그런데 우일이나 우미는 소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살아갈 수 방편임을 터득한다. 오랫동안 비호의적인 시선 아래서 버려진 자신들과 화해할 수 없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פות이나마 인지했기 때문

이다. 상호소통의 불가능을 알았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는 구별과 배제의 대상일 뿐, 그래서 배제의 시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최선책임을 알고, 스스로 폐쇄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아버지가 떠난 집에서 이웃의 차가운 냉대를 ‘아무렇지 않은’ 무심한 태도로 견딜 수 있는 것도 스스로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을 세계화하며 살아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엄마가 또다시 가출을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버지로부터 6개월 이상을 연락이 없어도 밀린 방세나 밀린 부식비 등에 대한 비아냥거림에도 아랑곳 않는다. 폐쇄된 공간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또한 심상치 않다. 우일이는 더 이상 ‘구구단을 외지 않으며’, 학교 대신 ‘만화방’에서 또래들과 담배를 피며, ‘팔뚝’에 ‘심장모양의 문신’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 우미는 우일이를 문 이웃집의 ‘새끼 밴 개’의 배를 기어이 가르게 한다. 이처럼 조로(早老)한 아이들의 위악적인 행동은 오히려 세상의 황폐함을 역설한다. 우일이와 우미는 새를 좋아하고 날아다니기를 꿈꾸나, 세상은 이들의 꿈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이층에서 곤장 떨어내린 우일이는 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간다. 죽어가는 우일이를 뒤로 하고 새장을 들고 ‘집의 반대편’으로 떠나는 우미의 행보 또한 심상찮다.

우일이와 우미의 병리학적 성장은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죽음의 공간과 맞닥뜨림으로 끝이 난다. ‘새’가 상징하듯 이들의 삶은 현실의 황폐함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나, ‘개천 독의 마른풀 사이에서 발견된 죽은 새’가 암시하듯 현실의 냉대어린 시선들만 가득 찬 현실 세계에서는 날 수가 없다.

『새』의 우미는 상징질서에 대한 거부와 수락의 양날의 긴장 속에서 결국 수락의 축을 놓아버린다. 집과는 반대방향, 아버지가 떠났고, 연숙이 아줌마의 남편 이씨 아저씨가 떠났던, 돌아오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세상과의 소통을 완전히 거부한다. 결국 우미의 길 떠남은 죽음 충동

으로 귀결된다.²⁰⁾ 우미의 죽음충동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현실의 부정성이다. 이 지점에서 ‘집’을 나간 어머니의 행보와도 만난다.

『완구점 여인』,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새』에 등장하는 성장의 주체들의 ‘병든 몸’이라는 훼손된 신체는 발달 서사를 내적 원리로 선택하고 있는 성장소설의 형상적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폭력성과 만나고 있으며, 불구적인 아버지 세계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오히려 병에 감염된다. 병적인 상태로 침윤, 죽음과의 친연성은 현실의 부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곳곳에 병자들의 형상으로 압축시켜놓고 있다. 근대 과학이 질병을 발견해 냈고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내듯²¹⁾, 병에 감염된 몸은 ‘건재한’ 아버지의 세계에서 발견의 대상으로 차별화되면서, 한편 병은 건재한 아버지가 소실되는 지점이기도 하다.²²⁾ 아버지의 소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조롱과 거부의 태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거짓말, 도둑질, 동성에 등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일탈 행위들은

20) 죽음충동이란 대상과의 동일시를 추구하는 전(前)외디푸스적인 충동 즉 쾌락원칙에 지배되는 충동이다. 철길을 지나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의 정체는 이미 오래 전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간 어머니의 그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미가 집을 떠나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정하는 것은 죽음의 공간을 암시하면서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원회귀의 본능, 훼손되지 않은 모성의 공간에 대한 지향을 암시한다.

21)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책세상, 2001.

22) 의학 지식의 유포가 질병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낳고 이 관심이 결국 병든 신체를 발견해 내며 또 이 발견이 강박적 불안과 공포를 연쇄적으로 낳는다는 점에서, 질병에 감염된 신체는 공고한 근대 의료지식-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 2004, 119쪽. 이런 관점에서 질병을 본다면, 병든 몸은 금기의 대상이면서, 금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김복순은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일탈적인 행위를 광기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이 광기를 동일성에 대한 역담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성 광기의 귀결, 모성혐오증」,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국문학연구회, 한길사, 2000, 36-45쪽.

결국 이들이 경험한 아버지 세계가 보여준 파행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에서의 일탈과 거기서 연유된 광기는 도피가 아니라, 그 제도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탈적 행위들은 현 제도의 거울이며, 제도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³⁾ 이렇게 볼 때, 여아들의 병든 몸과 일탈적 행위들은 아버지 세계 속에서 질서화 되는 것을 거부하며, 역설적으로 질서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한편, 오정희의 성장소설에서 여자들(부네, 제니, 매기언니, 우미)이 병과 죽음의 공간에 더욱 친숙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젠더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작품에서 가학의 주체는 오빠(『유년의 뜰』, 아버지(『완구점 여인』, 『유년의 뜰』, 『새』), 남편(『새』), 흑인 남자(『중국인 거리』) 등 남성들이다. 반면, 『완구점 여인』의 남동생이나 『새』의 우일을 제외하고 폭력의 대상에는 여성들이 위치한다. 언니(『유년의 뜰』), 부네(『유년의 뜰』, 어머니(『유년의 뜰』, 『새』), 매기언니(『중국인 거리』), 제니(『중국인 거리』, 아내(엄마)(『새』) 등이다. 이러한 가학과 피학의 남성/ 여성의 이분법은 성차의 문제와 이어진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이 획득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는 이후 오정희 소설 작품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구성’의 여성들과도 상통한다. 즉 가부장제 현실과 그 곳에서 타자화의 방식으로 획득되는 여성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일탈의 역설을 부각시킨다. 즉 오정희는 계몽에 대한 응답론뿐 아니라 타자화된 여성이라는 젠더의 공간을 겹쳐 복합적인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23) 강상대, 『우리 소설의 일탈과 지향』, 청동거울, 2000, 64-84쪽 참조.

V. 반기억의 서사- 전체화에 대한 거부

성인의 시점에서 과거 유년을 회상하는 구조는 성장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성인이 된 시점에서 과거 유년기를 되돌아봄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가치평가를 내린다. 이때 회상된 과거는 현재적 시공간의 질서 안에서 재편되며 이는 전체화된 질서를 구성해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띤다. 즉 기억이 공간과 시간의 현재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상행위라면 기억된 내용이 말해주는 것은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주체의 현재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오정희 성장소설에서 보여주는 기억의 양상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로 수렴되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것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일관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유년의 뜰』에서 노랑눈이는 이발사 아저씨에게서 익숙한 냄새를 맡는다. 이발사의 몸에서 나는 ‘머릿기름 냄새’는 생소하지 않았다.

나는 후루룩 숨을 들이마셨다. 구역질나는, 익숙한 냄새였다. (중략)
어디서 맡아본 냄새였을까. 나는 안타까이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흘러간 시간의 저 안쪽 어디엔가에 숨어 전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노랗고 윤기 없는 머리털이 발밑에 어지러이 떨어져 있었다. 바람결에 맥 없이 후루룩 날리기도 했다. 나는 그곳에 침을 뱉고 발로 문질렀다. 그때 문득 나는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이발사에게서 맡아지던 친숙한 냄새,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머리에서 풍기던 기름 냄새였다.

(『유년의 뜰』, 17-18쪽)

‘머릿기름 냄새’는 과거/현재, 아버지/아저씨, 전쟁 전/ 후를 분할하기도 하지만, 두 개의 향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부재한 아버지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24)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27쪽.

구성해낸다. 그러나 거렁뱅이의 남루한 행색으로 돌아온 아버지로 인해 존재와 부재의 변증법적인 통합을 통해 재구된 정체성은 발견할 수 없다. ‘구토’라는 신체적 반응을 통해 현재 고통의 가중성이 부각되며 연속성은 해체된다.

지난 밤 떠나온 시골과는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시, 우리가 정말 이사를 온 것일까, 낯선 곳에 온 것일까, 이상한 혼란에 빠졌다. 그것은 공기 중에 이내처럼 질게 서려있는 무척 친숙하고, 내용은 잊혀진 채 분위기만 남아있는 꿈과도 같은 냄새 때문이었다. 무슨 냄새였던가. (중략) 아 그제야 나는 그 냄새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을 알아 채는 순간 그때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낯선 감정은 대번에 지워지고 거리는 친숙하고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것은 나쁜 행복감이었고 전날 떠나온 피난지의 마을에 깔아 먹여진 색채였으며 유년(幼年)의 기억이었다. (『중국인 거리』, 76쪽)

시골/ 도시, 과거/ 현재의 분리를 통합해 주는 매개체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다. 이 냄새는 과거와 현재를, 시골과 도시의 비동시적인 것들에 동시성을 부여해준다. ‘익숙한 냄새’가 떠나온 시골을 환기시키나, 유년의 시골은 현재 도시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도시는 또다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그 남자’로 표상되는 ‘중국인 거리’와 양갈보 ‘매기 언니’로 표상되는 GI 문화가 공존해있는 낯선 곳이다. 우울한 시선의 중국인과 매기언니의 죽음은 ‘친숙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온’ 냄새의 근원을 없애버린다. 하여 응시와 죽음의 현재적 공간은 ‘나쁜 행복’의 진원지였던 과거와 이질성을 드러낸다. 이 혼란 속에서 유년의 화자는 이러한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질서를 발견하지 못한다. 기억을 통해 떠오른 과거로 현재를 재구성하여 자기 존재의 동일성을 찾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은 현재 나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시간을 흘뜨린다.²⁵⁾

25) 최성실,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위한 변주곡』, 『불의 강』해설, 문학과 지성사, 284쪽.

그러므로 오정희 소설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공존하는 이질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이처럼 『유년의 뜰』이나 『중국인 거리』에 등장하는 ‘익숨함’의 장치들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듯하지만 언제나 미끄러지기만 한다.

인생이란...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뒤를 이을 어떤 적절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색채로 뒤범벅된 혼란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올 내일들을 뭉뚱거릴 한마디의 말을 찾을 수 있을까 (『중국인 거리』, 97쪽)

그때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 (『새』, 73쪽)

유년의 화자들은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이 하나로 통합될 수 없음을 감지한다. 즉 시간의 전체화에 대한 회의와 머뭇거림을 드러낸다. 이는 나아가 시간의 전체화에 대한 저항으로도 읽을 수 있다. 『새』에서 우미의 기억은 이에 대한 보다 뚜렷한 성격을 드러낸다. 우미는 우일와 함께 문득문득 과거의 엄마를 기억해 낸다. “엄마의 얼굴은 삭지 않은 피멍으로 언제나 꽃이 핀 듯 울긋불긋하던 무늬, 엄마의 얼굴에 그려진 그림만 남았다, 누가 엄마의 얼굴에 그림을 그렸니? 슬픔의 그림을 그렸니?”(10쪽) “엄마는 늘 울었어. 누가 엄마의 얼굴에 그림을 그렸지?”(141쪽) “우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되라고 우미라고 이름 짓고 우주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되라고 우일이라 이름 지어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부르던 마음은 이제사 내게로 와 들리는가보다”(154쪽) 등으로 이어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에 의해 금지된 것들이다. 이 엄마는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간, 즉, 제도화된 모성²⁶⁾을 거부한 엄마이

26) 아드리엔느 리치는 ‘여성들이 재생상과 자녀들에 대해 갖는 잠재적인 관계, 즉 어머니 노릇의 구체적인 경험과 그러한 잠재력을 남성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는 제도’를 모성이라는 제도로 규정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어머니 되기와 구별

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세계는 또다시 우일리와 우미를 결국 세상 밖으로 쫓아낸다.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쫓겨난 우미가 죽음충동의 순간에 환기하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들을 방기한 세상의 목소리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계의 황폐함을 더욱 각인시켜주는 구실을 함으로써 아버지 세계에 대해 부정적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엄마가 현재 아버지의 시간에 통합되지 않은 채 현재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질서에 통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시·공간의 생성을 보여 준다. 이처럼 오정희 소설에서 성장주체들이 보여주는 회상의 형식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통합적 질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反통합적인 의미를 생산해 낸다.

VI. 나가기

오정희의 『완구점 여인』,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새』에서는 주로 병리적인 징후를 보이는 여아들을 등장시켜 아버지 세계에 대한 환멸적 체험의 양상을 역설하며 수직적 계몽담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아들을 성장주체로 내세운 오정희의 성장소설에서는 기성사회를 수용하고 내면화하게 하는 상징권력의 담론이 반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잘 드러나게 하는 주요한 매개요인을 본 논문에서는 여아들이 경험하는 ‘병리학적 공간’으로 보았다. 여아들은 아버지 세계에서 추방당한 여성들의 질병을 목도하면서 아버지 세계의 폭력성을 인식한다. 이는 타자화를 통해 공고히 구축되는 주체(아버지)의 욕

짓는다. 즉 어머니 되기의 경험이 여성의 주체로서 경험이라면 ‘모성이라는 제도는 여성이 타자로서 부과 받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02, 46-64쪽 참조.

망과는 달리 오히려 여아들은 타자들의 공간을 내면화하면서 이들과 우울증적 동일시를 경험한다. 감염된 이들은 폐쇄적이고 병리학적인 징후들을 드러낸다.

본고는 이러한 병리학적 징후가 발견되는 여성의 성장공간을 문제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 공간의 경험- 도둑질, 동성애, 죽음충동 -을 고찰했다. 여아들에게 나타나는 병리적 공간은 폭력적인 아버지 세계에 대한 경험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공간은 폐쇄되거나 추방되어야 할 공간이 아니라, 포괄과 배려의 생태적 원리의 출발선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때 성장 주체의 병리적 징후는 제거되어야 하는 환부의 자리이면서 건강한 아버지의 정상성에 대한 질문이며, 아버지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그 너머, 대안적 공간을 사유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의미를 지닌다.

오정희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여아들의 병리적 성장은 오정희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성’의 공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작가 오정희가 주목하는 공간은 주지하다시피 가부장제 하의 왜곡되고 억압된 젠더의 공간이다. 그의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여성 인물들의 불구성과 일탈적 행위는 가부장제 하에서 타자화된 여성 공간을 환기시킨다. 성장소설에서 여자 아이들을 초점화하여 이들의 언어와 행위가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질서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주목한 여아들의 몸을 둘러싼 병리적 공간은 오정희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여성 몸의 불구성이 갖는 총체적 의미에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국면에 나타나는 병리학적 공간을 밝혀 그것들이 갖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상징권력, 타자, 우울증적 동일시, 병리적 성장, 우울증

참고문헌

-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77.
-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 『새』, 문학과지성사, 1996.
- 강상대, 『우리 소설의 일탈과 지향』, 청동거울, 2000, 64-84쪽.
- 김경수, 「여성 성장소설의 제의적 국면」,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233쪽.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78-390쪽.
- 김복순, 「여성 광기의 귀결, 모성혐오증」,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국문학연구회, 힌길사, 2000, 36-71쪽.
- 김영애, 「오정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학연구』, 20,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4, 367-383쪽.
- 김효신, 「오정희의 성장소설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1, 19-46쪽.
- 김예니, 「여성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 양상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4, 54-83쪽.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 2004, 119쪽.
-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27쪽.
- 문재원, 「오정희 소통의 부재와 일탈적 욕망의 세계」, 『몸의 역사와 문학』, 태학사, 2002, 151-170쪽.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 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65쪽.
- 이정희, 「오정희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Gender)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 2001, 38쪽.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430-431쪽.

최현주, 『한국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47쪽.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133쪽, 190쪽.

미셸 푸코, 이정우,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15-23쪽.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02, 46-64쪽.

크리스 위던, 조주현 역,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이화여대 출판부, 1993, 80쪽.

<Abstract>

Pathological Imagination in the Novel on the
Growth of the Woman

- Centered on Oh Jung-hee's Novels -

Moon, Jae-Won

Oh Jung-hee's novel, 『Woman from the Stationary Shop』, 『The Yard of the Childhood』, 『Street of the Chinese』 and 『Bird』 mainly introduced girls who manifest pathological symptoms, and deny vertical enlightenment discourse while mentioning the disillusionment of the father's world. Given this, Oh Jung-hee's novels on the growth of the girls embrace the mainstream society, while the discourse of the symbolic power that is internalized is structured in an ironical manner. The key elements of the medium that represent these effectively are perceived as 'pathological space' that the girls experience. The girls witnessed the illness of the women who were purged from the world of fathers, recognizing the violence of this world. Unlike the desire of the fathers that are manifested as is through the other, the girls in fact internalize the space of the others, while experiencing depression that they too experience. They are contaminated, and the closedness and pathological symptoms are manifested.

This paper recognizes the space whereby the girls grow and where these pathological symptoms are found, and examines the experiences in this space, namely robbery, homosexuality, and impulse towards

death. The pathological space that are manifested in the girls, start out from their recognition of experience in the violent world of their fathers. Thus, this space is not to be closed down or purged, but assumes the significance as the starting point of embracement and ecological principle of consideration. At this time, the pathological symptoms pertaining to the growth entity is the space of the affected part that needs to be eliminated, and also the question on the normalcy of viable father, and assumes the meaning as the point that can serve as an alternative space that goes beyond while still in the world of fathers.

Key Words : Symbolic Power, The Other, Depressive Identification,
Pathological Growth, Femininity